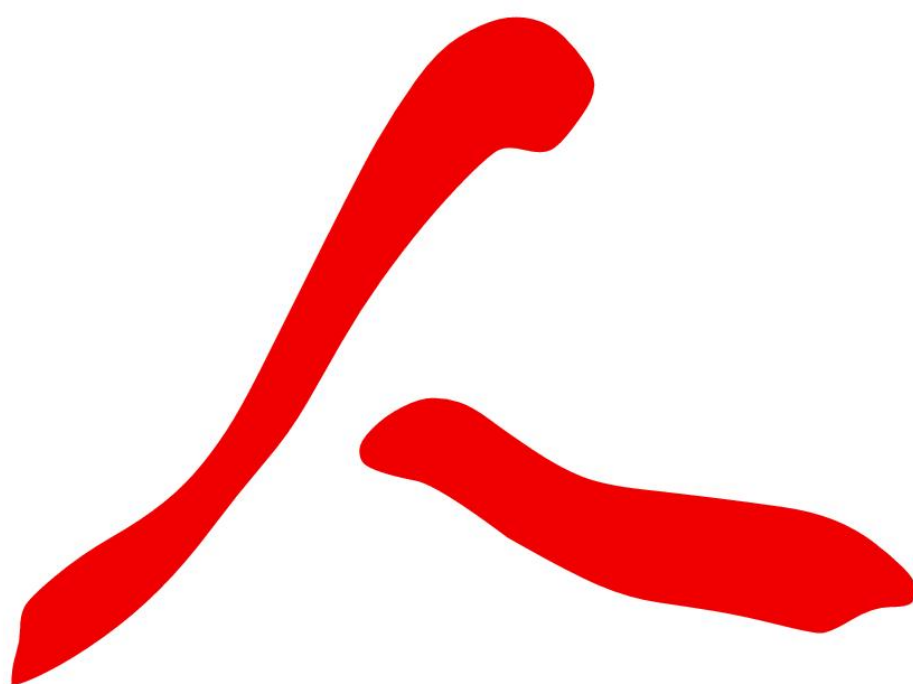


# HANDS



# HANDS의 숨은 인재들

HANDS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HANDS의  
숨은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HANDS는 더 큰 미래를 함께 공유하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HANDS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

HANDS1

고정호 사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물러서기보다는 다가서서, 혼자서 안되면 동료들의 힘을 빌려서 꼭 해내고 말겠다'는 열정을 불태우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근무하는 공정이 아닌 다른 곳을 지나가다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데, 스스로 나서서 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보니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 보셨습니까?'로 시작되는 핸즈의 도전정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해보는 것이 있어야 결과물이 있게 되고, 해보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 HANDS는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HANDS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면이 바탕이 되는 도전!

## HANDS2 정승환 조장

입사 초기엔 일을 배우기에 급급했고, 힘든 업무로 인해 불만도 많았습니다. '해 보셨습니까?'라는 사훈에 대해서도 처음엔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아무런 뒷받침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면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나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저도 근면성으로 뿌리를 내리고 핸즈의 열매를 산출하는 직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도전하겠습니다!



#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 HANDS3

### 권성원 조장

넘어질 때마다 무엇인가를 줄는 사람은 자신의 꿈에 점차 다가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을 핸드스에서 깨달았습니다. 큰 문제에 직면하여 좌절했을 때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하면 결국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회사가 동반성장하는 비결은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라는 마인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모든 일에 관심과 호기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결국엔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항상 도전하는 핸드스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언제나 새로운 HANDS HANDS5 황해원 주임

핸즈는 저에게 늘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펼쳐질지 생각할 때 오는 설렘과, 일의 결과로부터 기대되는 기쁨, 때때로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 등 핸즈는 저의 매일 매일이 헛되지 않게 항상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저는 핸즈의 '해 보셨습니까?' 사훈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해 봤어?"라고 자문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반성할 만한 일이 떠올라 몸을 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나 도전하는 마음으로 핸즈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는 핸즈인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제품이 곧 제 자부심입니다

HANDS5

이연성 사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원치 않는 불량이 발생하곤 하는데, 불량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공정인 도장공정에서 일하는 저는 그저 앞 공정에서 일하는 사우들이 흘린 땀 방울이 헛되이 되지 않게 불량을 하나 더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고생하는 사우들과 회사를 위해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위치에서 본연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해 보는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동료들과 땀을 흘리다 보니, 완성되는 월이 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양질의 제품만이 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의 터전인 핸드스에서 저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HANDS6**

**경종현 사원**

9년 동안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핸드스에 입사하게 된 저에게 핸드스는 새로운 도전과 시작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긴장과 기대감이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실수도 많았지만 항상 웃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제가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회사에 작은 보탬이 되어서 회사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삶과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실패할 것 같은 도전에는  
해보려고 하지 않는데 반해 핸즈는 실패를 겪  
더라도 일단 해보라는 사훈이 있습니다. 그라  
서 업무에 임할 때 사소한 것 하나에도 더욱 관  
심을 갖고 보게 되어 제 스스로 업무능력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제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 특성상 각 공정의 많은 작업자들과 부딪  
히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회사에서 배운  
도전정신으로 끝까지 도전한 결과 제가 일하  
는 공정의 사이클타임을 줄임으로써 생산수량  
증대에 이바지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부  
듯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제 자신  
을 더욱 발전시키고 노력하여 핸즈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나의 잠재력을 일깨워준 HANDS

HANDS6

고종필 사원



뿌듯한 삶을 느끼는 HANDS

HANDS THUMB

장상호 사원

저는 회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성이 바탕이 된다면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무슨 일이든지 결국에는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부서원들과 현장 작업자분들 모두가 본인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며 많은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주변에서 보고 배운대로 저도 제 일에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나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뿌듯합니다. 앞으로 핸즈의 성장에 저를 비롯한 금형개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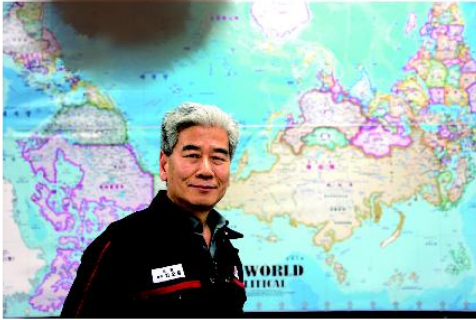
저에게 핸즈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 곳으로 직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핸즈는 저에게 도전정신과 더불어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핸즈에 입사한 후로 좋아하던 술도 끊을 수 있었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하며 놓았던 펜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핸즈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여러 핑계로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의욕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기술을 습득한 후 자동 제어의 일인자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2의 인생 HANDS  
HANDS MECHANIC  
이철호 사원



# HANDS 역사와 함께한 인물들

## 동화상협 | 김오흠 상무



Q : HANDS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도전에 신사업본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업본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산업 생산분야와 가정의 난방 및 기타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상품화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신사업본부는 지금도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형의 산업용화로 제작을 우선으로 가정용 생필품, 환경정화, 에너지 생산

상품화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HANDS가 세계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신사업본부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 : 동화상협의 임원으로서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역할과 동화상협 직원들을 위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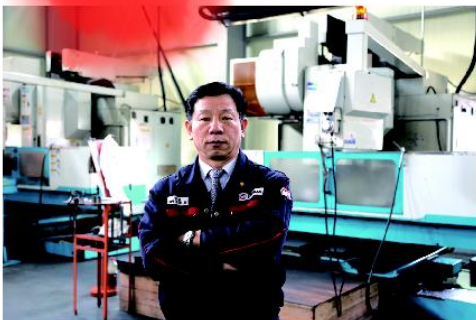
A : 39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화상협은 최근에 인재 양성과 교육,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동화상협의 임원으로서 저의 역할은 경영자와 직원들간의 사이를 연결해 주고, 직원들 개개인이 회사생활에 재미를 느끼며 융통성 있고 균형 잡힌 회사의 조직원이 되어 함께 발전해나가도록 지원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주쳤을 때 동료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서로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더욱 발전하는 동화상협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동화상협 | 김식영 상무



## HANDS CORPORATION | 조종록 이사



Q : HANDS와 함께한 28년의 노하우를 통해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 자신이 하는 일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왜?"를 생각하며 사물을 바라보고 "이 방법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만 해야하지?"라고 의문과 관심을 가지고 느끼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생각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게 됩니다. 아는 것은 생각만 하게 하고 좋아하는 것은 바라보기만 하게 하지만 즐기는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도전을 통해 성취하고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성장이나 성공할수록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는 데 있습니다. 실패는 행동하는 자의 특권임을 명심하고 도전이 변화의 시대에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HANDS CORPORATION | 장동익 이사

Q : 이사님께 있어 안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뿌리지 않은 열매는 열리지도 않으며, 정성을 다해 가꾸지 않으면 풍년이 되지도 않습니다.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고 농약도 주며 부단히 노력하면 풍년이 됩니다. 안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작업을 하기를 원하며, 결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우리의 노력만큼 그 결실을 맺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지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들인 정성만큼 작업장이 안전해질 것입니다.



## HANDS CORPORATION | 이호성 이사



Q : 현재 새로운 도전 중 HANDS PRIME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 HANDS PRIME은 모두 회장님의 굵직한 의지를 바탕으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회사 고유의 브랜드 명으로 향후 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프리미엄급 휠을 제작하여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회사 고유의 특허기술로 만들어진 HANDS PRIME 마그네슘 휠은 출시 이전부터 많은 소비자 및 관계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에는 정도와 초심이 있습니다. HANDS의 전 직원들이 매일 초심을 가슴에 새기며 거짓없는 정도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 HANDS의 앞날은 빛날 것입니다.

## HANDS CORPORATION | 김홍석 이사

Q : 핸즈의 새로운 부서인 시설관리부에 입사하신 소감과 시설관리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동화상협에서 HANDS CORPORATION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날로 성장해 가는 HANDS의 저력과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시설관리부의 임원으로서 HANDS의 새로운 식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부는 HANDS를 위해 각 공장의 증축과 개축,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HANDS의 모든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있는 저희 HANDS의 휠 처럼 시설물 또한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HANDS CORPORATION | 강신원 이사

Q : 회계임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 그리고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사람이 유아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감에 따라 책임이나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기업도 성장 단계에 따라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규가 증가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관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그 기준 자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HANDS가 성장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준비하고 상장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회계부를 포함하여 HANDS 가족분들과 함께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



## 동화상협 | 정이교 이사



Q : HANDS 人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이뤄야 할 즐거운 일들이 있고 저녁이 되면 그 일을 이뤘다는 뿌듯함이 있다면 이 하루가 정말 보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미치다 보면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 넘치는 멋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멋진 HANDS 人 입니다.

## HANDS CORPORATION | 김경태 이사

Q : HANDS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창설된 법무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임원의 역할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이번에 새로 생긴 법무실은 법률 문제를 해결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업무의 병목현상을 질서있게 유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회사의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업무의 중복이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안정과 질서를 유도하고 외부적으로는 강하고 경쟁력있는 HANDS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원들은 미래를 해석하고 예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향을 예측하여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발전된 회사를 이룩하기 위한 방향을 결정짓는 것! 그것이 임원의 역할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도전정신  
우리는 HANDS人

**HANDS**에

새로운 도전으로 바람을 일으킬  
16명의 새로운 **HANDS** 人을  
소개합니다.









## HANDS PINGDU

## 한글사랑

핸즈 청도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재무부 안형기 부장의 한글 사랑 교육이 그 이유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직원들이 회의실에 용기종기 모여 한국어 교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피곤한 몸에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핸즈 청도 직원들의 열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숫자 등을 배우는 초급반부터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급반, 한국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급반까지 안형기 부장의 한글 교육은 수준별 맞춤 클래스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그 사람이 호감형인지 비호감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언어에 있어서도 첫 인사말이 가장 중요하겠죠? 초급반 학생들을 위한 안형기 부장의 한국어 인사말 교육 모습입니다. 일과가 끝난 늦은 밤에도 핸즈 청도 직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한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안형기 부장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0입니다.” 안형기 부장의 한국어 인사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따라하는 핸즈 청도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지만 한글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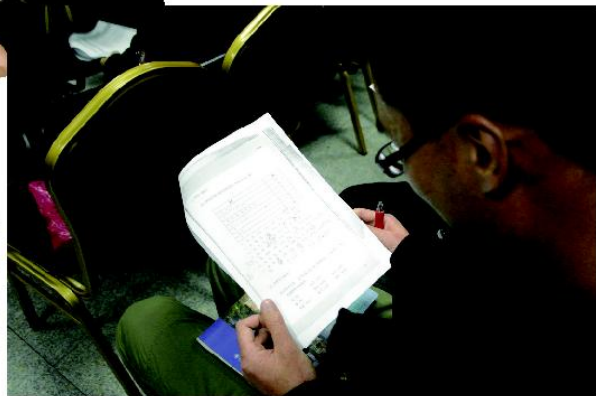






"이건 어떻게 발음하는거야?" 발음에 있어 궁금한게 많은 헨즈 정도 직원은 뒤에 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한글 수준을 향상 시켜가는 헨즈 정도 직원들.

대한민국의 한글은 같은 발음을 가졌지만 다른 뜻을 가진 문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앉다'와 '안다'는 발음보다는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단어인데요. 헨즈 정도 직원들은 이런 한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는 중급반 모습입니다. 서툰 모습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수업이 끝난 후에도 헨즈 정도 직원들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글을 사랑하는 헨즈 정도 직원들을 사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나요? 헨즈 정도의 한글 사랑 열풍이 번치않길 기원합니다.



# 변화와 혁신의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

▶ 금형개발부 박중수 대리의 "이젝트 플레이트 형상 변경" 제안은 스페서 및 이젝트로드의 수량감소로 원형의 소재형상을 직사각형으로 변경하여 소재비를 절감한 내용으로 2013년 2월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 포상 소감 (박중수 대리)

저의 제안은 "왜?"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일들에 의문을 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결과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평범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다같이 앞장서야 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우리 HANDS 人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형개발부 박중수 대리





▶ 생산2부의 이성훈 차장과 신창모 조장의 공동 제안인 IMT라인 Cycle Time 단축 (가공경로개선)은 기존 F2 소재의 Inner 플랜지부 및 웨이트 발란스부 가공량 과다로 Cycle Time 증가 부분을 가공경로 변경과 틀링을 최적화하여 Cycle Time을 단축시킨 것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포상 소감 (이성훈 차장)

제안에 대한 저의 노하우나 방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짧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적당한 열정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이나 개선과 같은 꾸준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에는 더욱 큰 열정이 필요합니다. 개선은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것이 제안을 위한 저의 자세입니다.

헤민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중만 하면 전화번호부 책도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제안이나 개선은 문제점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몰입하는가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화장실을 갈 때 스마트폰 대신 지금 개선하고 싶은 문제를 들고 가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생산2부 이성훈 차장

▶ 포상 소감 (신창모 조장)

우선 제가 올린 제안으로 포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가공2반 IMT 조장을 맡게 된지도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으로 IMT 라인이 구축되고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고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했던 IMT C/T 단축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자동화 라인을 통해 생산수량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가공라인의 변화를 주어 C/T을 줄이는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생산2부의 한사람으로 많은 것을 고민하고 보다 나은 제안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공2반 신창모 조장





**YONGBONG**



#### 품질 경영방침

1. 최고의 품질과 품종의 다양화
2.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
3. 정직과 진실로 고객에게 인정받는 기업
4. 공존 공영을 이룩하는 기업

#### 취급품목 리스트

1. AIR CAP
2. 각종 TAPE(OPPTAPE, 양면TAPE, 전기TAPE등)
3. 유니랩, 위생장갑, 위생백
4. 핸드트럭

저희 (주)용봉 은 인천본사를 중심으로 전북 군산, 경남 김해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포장자재의 생산, 가공 그리고 유통업체로서 고객에게 만족스런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yongbong.net>

TEL : 032)581-7405( 代 )

FAX : 0507)555-7868